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목 차

◆ 문제 제기

1. 한국의 이미지 관련 조사 : '근이불친(近而不亲)'의 한중관계

- (1)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 (2018)
- (2) 통일연구원의 『동북 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관련 조사
- (3) 한국 이미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
- (4) 기타 조사 결과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경

- (1) 국력의 변화와 자신감의 증대
- (2)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로의 증대

3. 한중 양국 신뢰 구축을 위한 건의

◆ 문제 제기

- 한국과 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로서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왔으며, 1992년 수교 이후 1990년대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한중 양자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현재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고 2015년 한중 FTA 달성했지만 그 이후로 사드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신속하게 냉각되면서 아직까지도 회복세가 눈의 띄게 보이지 않음.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거의 10년간 양국관계는 공식적으로 격상된 바 없음. 한때 뜨거웠던 한중관계는 거의 원상 복귀의 수준임.

- 우선, 한중관계를 둘러싸고 몇 가지 질문 제기할 필요 있음. 첫째, 한중 관계가 왜 경제무역 의존도가 높고 활발하지만 양국 정치적 관계는 정체되고 국민 간 친근하지 않는가? 둘째, 한중 관계는 왜 제3국과 관련된 문제의 영향에 취약한가? 셋째, 한중일 3국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왜 3국 간 상호 신뢰가 낮고 유럽처럼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신뢰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신뢰는 타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타국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여러 요인에 작용되고 변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에 탄 것과 같은 한중관계가 '밀월기'와 '슬럼프'를 연속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 있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양국의 긍정적 인식의 형성과 오해 해소를 위한 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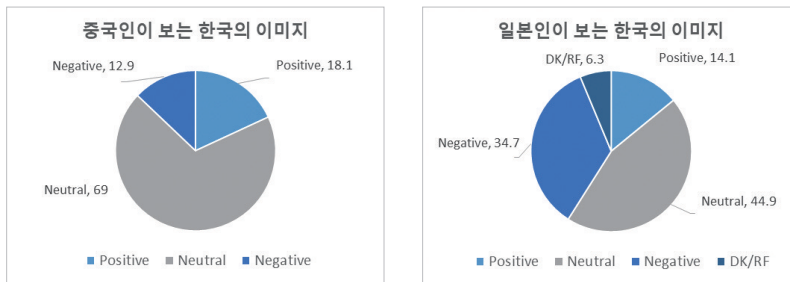
1. 한국의 이미지 관련 조사 : ‘근이불친(近而不亲)’의 한중관계

(1)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2018)¹⁾

- ◆ 한 전문 여론조사기구는 2018년 한중일 3국 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 진행함. 중국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2~31일까지 중국의 10개의 주요도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국 응답자의 답변을 통해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웃 국가에 대한 인식’에서 한중일 3국 응답자는 서로에 대한 친밀도와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은 ‘역사영토 문제’, ‘정치적 충돌’ 및 ‘경제적 이익 차이’ 등에 집중됨. 일본의 응답자는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24.2%로 가장 낮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56.4%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도 51.7%보다 높음.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39.5%로 일본에 대한 친근감 30.7%보다 높음. 이와 반해 한일 응답자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각각 24.2%, 31.4%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한국/일본/중국을 언급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에 응답자의 다수 중성적인 이미지를 언급하였고 그다음은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는 적음.

한중일 3국 응답자는 서로에 대한 친밀도와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1〉 귀하께서는 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처: 유관 조사결과 내용 인용.

- 한국을 언급할 때, 중국 응답자 중의 69%와 일본 응답자의 44.9%가 중성 이미지, 즉 ‘한식’, ‘성형’, ‘미용과 화장품’, ‘기업과 제품’ 등 언급함. 중국 응답자는 일본 응답자보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게 나타남. 중국 응답자 중 12.9%, 일본 응답자 중 34.7%가 ‘역사 갈등’, ‘사회 부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표-1〉 한중일 3국 상호 인지 조사: 중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중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
긍정적	한류-연예인, 드라마, 아이돌그룹	14.1
	기타 적극적인 이미지	3.4
	기술과 경제 발전	0.6
중성	성형, 뷰티, 화장품	21.8
	기타	18.9
	한식	15.9
	한국기업과 제품	6.6
	여행, 도시, 운동	5.7
부정적	기타 부정적 이미지	7.1
	사드문제	3.8
	전대통령 탄핵, 북한	2.0

*출처: 유관 조사결과 내용 인용.

- 응답자 중 60대와 비교할 때 젊은 20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았고 특히 일본에 대한 친근감으로 나타남. 보고서에서 3국 젊은 세대는 상대국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밝힘.
-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 응답자 중 44.3%가 한중일 3국은 '상호 보완의 관계'로 답변하였고 43.1%는 '상호 경쟁의 관계'로 답변하여 한일 양국과 비해 3국이 보다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함. 일본 응답자 중 13.3%만 3국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답변했고 29.1%의 응답자는 '상호 경쟁의 관계'로 답변함. 전체적으로 3국은 상호 보완 관계보다 경쟁 관계를 지향한 것으로 인식함.
- 3국 응답자는 대부분 한중일 3국은 모두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관련 이슈 등과 개별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3국 협력의 지속'에 동의하며 가장 협력이 필요한 영역은 '오염방지', '경제협력' 등으로 인식함.
- 3국 응답자의 44.8%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타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답변함. 그 중에서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 60%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응답자 중 60세 이상의 58.2%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접하지만 이와 비해 한국과 일본의 60세 이상 응답자는 각각 15.4%와 11.5%로 나타남. 한국 응답자중 60대 이상 TV를 통해 중국과 일본 관련 정보를 접하는 자는 59.9%, 중국은 29.9%로 나타남. 인터넷과 이동통신 수단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

인터넷과 이동통신 수단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

(2) 통일연구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관련 조사

◆ 이 조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한중일 3국 전문가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서면 인터뷰임. <표-2>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국의 ‘협한’ 수준과 ‘협일’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 나타남.

<표-2> 중국의 협한과 협일 수준

중국의 혐오 수준	중국에서의 협한	중국에서의 협일
(1) 매우 심각	0(0.0%)	3(15.0%)
(2) 어느 정도 심각	2(10.0%)	11(5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6(80.0%)	5(25.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5.0%)	0(0.0%)
*심각함=(1)+(2)	2(10.0%)	14(70.0%)
*심각하지 않음=(3)+(4)	17(85.0%)	5(25.0%)
합계(명)	20(100.0%)	20(100.0%)

*통일연구원,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p.147.

- 중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의 ‘협일’ 수준이 중국의 ‘협한’ 수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총 17명의 응답자는 중국에서의 ‘협한’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4명의 응답자는 중국의 ‘협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중국에서의 ‘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현재의 협한문제의 주 원인을 사드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협한’문제의 해결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중 간은 과거에 경제적 협력을 위주로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청소년 교류, 학술적 논의, 유학생 상호 파견 등 양국 사회 전반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 있음.
- 중국에서의 ‘협한’이 나타나는 배경, 원인,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를 통해 양국 언론의 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추진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인터넷에서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목소리를 정부의 입장으로 옹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제3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분단의 역사, 일본에 의한 식민지 역사에

**협한문제의 해결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의 민족적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도록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함.

(3) 한국 이미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

◆ 한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인의 이미지가 중국에서 어떤 수준이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움. 다양한 요인(관광목적, 연령, 업종, 거주지 등)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놓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괄하기 어려움. 비슷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접하는 정보나 한국인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0~60대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별(남, 여), 연령대(20대에서 60대), 직업(공무원, 기자, 대학생, 교수, 회사원), 거주지(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창춘, 칭다오, 싱타이), 한국어 가능여부(숙련, 초보, 불가), 한국 방문여부(거주, 방문 경험 있음, 방문 경험 없음)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함.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중국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8개의 질문을 통해 진행.

- 우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화장품’, ‘친절함’, ‘예의 바름’, ‘깨끗한 환경’, ‘전통문화’, ‘드라마’, ‘한식’, ‘편의한 생활’ 등으로 나타나고 부정적 이미지로는 ‘언어 소통 불편’, ‘사회적 압력’, ‘사드문제’, ‘역사문제’, ‘한국 정당 경쟁’, ‘연예계 추문’, ‘국방 자주권’, ‘선후배 위계질서’, ‘포용성이 약하고 비교적 배타적’ 등 다양한 답변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한국어 불가하거나 한국 단기 관광으로 방문한 자는 한국의 대중국 호감도에 대해 ‘비교적 높음’, ‘괜찮음’,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한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대상은 ‘양면적’, ‘일본보다 좋음’, ‘복합적’ 등으로 인식함.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각적인 측면이 나타남.
- 비교적 많이 언급된 내용은 ‘전통문화의 보호와 홍보’로 나타남, 한중 간 문화 분쟁이 존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통 문화 영역에서 한국의 보호, 활용 및 홍보에 대해 인정한 입장임.
- 사드문제에서의 한중 간 입장 차이 비교적 많이 언급함. 사드는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군사국방 영역에서 미국에 의지하여 독립적인 국방권이 없음으로 미국에 종속된 이미지로 인식함.
-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둔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함. 한중 양국은 이웃하면서도 친하지 않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 지정학적으로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국가의 정치, 경제 이익도 영향을 미치며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입장, 중립적 입장, 낙관적 입장 모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각적인
측면이 나타남**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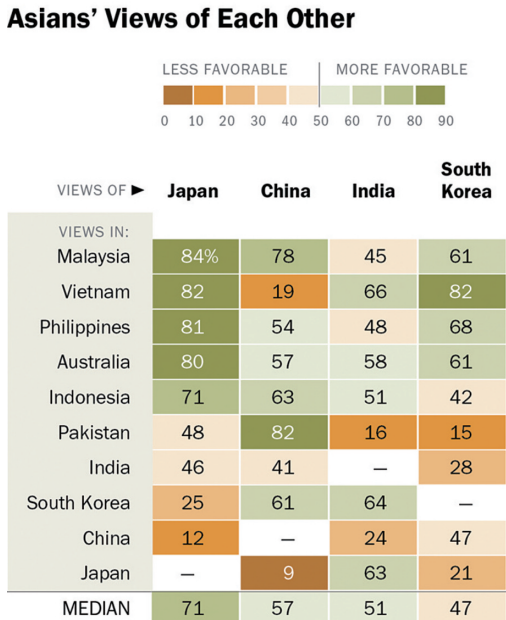
- 한국 관련 정보의 획득에 있어 대부분 응답자의 경우 인터넷, 드라마, TV 프로그램, 가족과 지인을 통한 접근, 그리고 한국인과 직접적으로 접한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등으로 나타남. 직접적인 접촉과 간접적인 인터넷을 통한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되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경로임.
- 한국 드라마와 영화, TV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아직도 매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드라마, 영화 제작 및 한류의 전파 등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야 한다는 주장 있음.
-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마다 다양한 화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4) 기타 조사 결과

-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5년 아시아 국가 상호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은 주변 대다수 국가들과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친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줌.²⁾

〈그림-2〉 아시아 국가 상호 호감도



Source: Spring 2015 Global Attitudes survey. Q12b, g, i, r.

PEW RESEARCH CENTER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Survey", 2015.

-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 '언론 NPO'는 2016년 중국과 한국의 싱크탱크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한중일 3국의 여론 조사 결과 발표함. 그 결과 한국이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중국인 응답자는 34.9%로 전년대비 약 20% 떨어진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1.1%로 전년대비 20% 넘게 높아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미국이 7월 한국에 사드배치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드'가 국민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경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후에는 여러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것이며 중국의 인식 변화는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작용한 결과임.

(1) 국력의 변화와 자신감의 증대

심층적으로 중국의 국력의 신장에 따라 자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17년 이후 사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심층적으로 중국의 국력의 신장에 따라 자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09년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타격을 면했으며, 2010년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 등 모두 중국의 국력의 증대를 확립함.
-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표한 '한중일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 중 국가 자부심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인이 93.6%로 나타나고, 한국인 응답자 중 '자랑스럽다'로 답변한 자는 8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3국 응답자 중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음.⁴⁾
- 2014년 9월 중국 『런민일보(人民日报)』에서 “중국은 자신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 게재됨.⁵⁾ 2016년 7월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4개의 자신(四个自信)', 즉 '중국특색사회주의 도로자신, 이론자신, 제도자신, 문화자신'을 내세우면서 “문화적 자신의 보다 기초적이고 폭넓고 깊은 자신감”의 지위를 강조함. 이러한 자신감은 중국공산당, 중국 정부만의 담론의 수준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국민의 자신감의 증대로 이어짐.
- 선진국과의 국력 차이가 축소되고 세계와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점차 시

**여전히 주변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범위가
더욱 큰 아시아 국가
라는 정체성이 강해짐**

야를 더 넓혀가는 과정임.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외교적 인 '유소작위(有所作为)'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상승과 자신감을 보여 줌. 여전히 주변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범위가 더욱 큰 아시아 국가라는 정체성이 강해짐.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기 후 주변국, 나아가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고,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 단계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격상시키는 등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이미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중국의 제의 하에 설립된 AIIB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고 2016년 항저우 G20의 성공적인 개최는 신 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자신감,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크게 증진시킨. 최근 등장한 '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등 중국의 외교 담론도 국제 사회에서의 자신감의 증대를 기반으로 함.

-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갤럽(Gallup)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전 세계 지지도는 34%, 미국은 31%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미국을 추월함.⁶⁾ 자신감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발전도상 중의 대국이고 패권을 추구하는 능력과 의지 모두 없음을 표명함. KBS에서 2015년 7부작 다큐멘터리 '슈퍼차이나'를 방영 후 한국과 중국에서 화제로 급부상함. 중국의 발전 현황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소개하며 중국의 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중국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중국의 강력한 국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경계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로의 증대

- 과거에 뉴스, 드라마와 한류를 위주로 하는 대한국 인식 형성에서 현재 한국 관련 정보를 더욱 다각적인 수단으로 접할 수 있음. 즉 한국 유학, 거주, 단기교류, 관광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이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언론, SNS를 통한 이해가 가능해짐. 더욱 신속하고(한국과 중국에서 거의 최신 뉴스를 공유할 정도로 전파력이 신속)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의 보도의 방향과 내용에 의해 오도되거나 네티즌의 개인정서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짐.

1) 정치외교 관계의 발전 및 경제무역의 의존성

- 양국 간 관계는 국민간의 친근감에 자극할 수 있음. 한중 양자관계는 오

**사드문제는 한중관계의
시금석임. 여기서 한중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
존재함**

랫동안 '정냉경열(政冷經熱)'로 평가받은 것처럼 경제적 협력이 활발하게 발전해 왔지만 정치, 군사적 협력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임. 비록 한중 양자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정부, 민간 등 여러 차원의 대화 채널이 구비되어 있지만 정치, 군사 영역의 관계는 아직도 한계가 있음.

- 한중 양자 간에 역사문제를 제외하고 사실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은 없지만 제3국의 영향에 취약한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 북핵문제 등 여러 가지 한중 간 공동으로 직면한 외적 변수들이 존재함.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침. 한미군사훈련, 사드의 경우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력하게 반응해 왔음. 사드문제는 한중관계의 시금석임. 여기서 한중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 존재함. 한미동맹의 경우 과거의 '냉전의 유산'의 인식으로부터 점차 한반도 평화의 유지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한중관계,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일 동맹'의 형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 보여줌.
-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자원, 노동력 자원, 산업구조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경제 교류와 무역협력이 좋은 자연조건과 객관적인 우위 조건 있음. 2015년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한 후 한중 교역은 2016~2017년 사드문제로 소폭 하락한 뒤 2018년부터 소폭 회복 추세 나타나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제4대 최종 수출국,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입국이자 수출국 유지함. 한국과의 교역의 확대를 통해 중국인은 한국산 제품과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한국 자동차, 전자제품, 화장품 등에 대한 선호도도 높음.
- 최근 한국의 해외 수출품 전체로 보면, 기전제품, 운송설비, 금속 등 제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화장품, 스킨케어 등으로 대표되는 화공품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5대 수출품목의 국별/지역 구성을 보면 상위 5개국 중국은 4개 품목에서 1위 차지함.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의심할 필요 없음.
- 2018년 한국은 세계 하이테크 제품 수출 5위를 기록함. 수출 품목 수출 대상국을 보면 아시아권 특히 중국 및 홍콩 반도체 수출 비중이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주요국의 하이테크 수출품목 구조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과학기기 등 정보기술(IT) 및 정밀기기의 비중이 90%를 넘음.⁷⁾ 이로 인해 한국에서 중국 의존에 대한 위험도 제기되고 있음.

2) 인적교류의 확대: 관광, 유학을 중심으로

- 한중간 수교 기간이 짧고 인적 교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 교류를 촉진하는데 문제점도 많다. 인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는 상대국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적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 유학 분야의 인적교류 성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인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는 상대국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 한중 관광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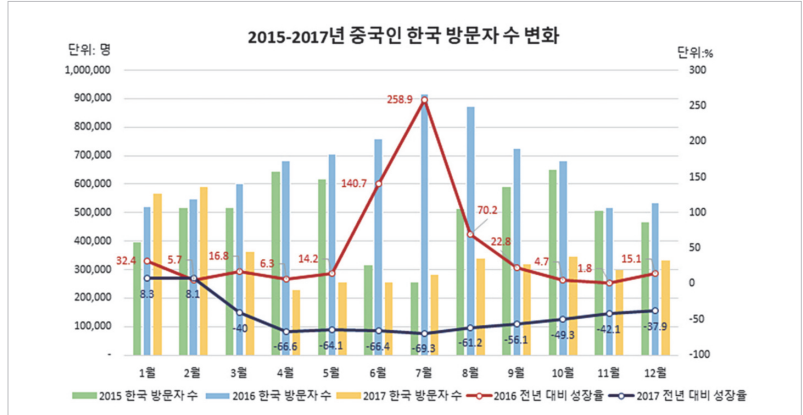
- 2014년 처음으로 한중 상호 방문 여행자 수 1000만명 시대로 들어서고 2013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선후로 상호 방문하여 '한중 관광의 해' 개최하기로 공동 선언함. '중국 관광의 해' 동안 중국은 총 120여 건의 한중 관광 교류 행사를 설계함. 관광의 해는 양국간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함.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전승리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양국 관계가 전례없이 좋아짐.

◆ 사드로 인한 관광객 수 폭락

-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방부는 롯데그룹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 최종 배치 지점으로 확정하고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하기를 결정한 후 한중관계는 전면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함. 중국 외교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대중들 간에서도 논의되는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중국 국내 여론은 일변도로 한국을 비난함.
- 2017년 3월 3일 국가 관광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출국 위험을 자각하고 여행 목적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주의를 제시하면서 한국 여행은 여행 전에 반드시 성실하고 전면적으로 한국 입국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지함.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관광 주관 부서가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하는 등 금지령을 내린 것을 부인함. 그러나 그 이후로 중국의 각 여행사에서 한국 관광제품과 광고가 제공되지 않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임.
- 중국의 한 유명 여행기관이 2017년 발표한 '2017 중국 여행 희망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인 관광객 중 31%가 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고, 환경 요인은 25%, 15%의 여행자는 여행 목적지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에 의하면 1.4%의 응답자만 한국 여행을 희망해 한국은 중국 관광객 선호 목적지 16위로 지난해보다 13위 떨어졌고,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호감도 급감으로 나타남.⁸⁾
- 사드 이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현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2015년 6월, 7월은 메르스(MERS) 영향으로 한국 방문자 수 잠시 하락세 보여줌.

2016년 7월 전년대비 성장률이 최고로 258.9%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해 옴. 2017년 3월부터 급하락 추세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최대 69.3% 하락함.

〈그림-3〉 2015년~2017년 중국인 한국 방문자 수 변화



*출처: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중국인의 새로운 관광 목적지 일본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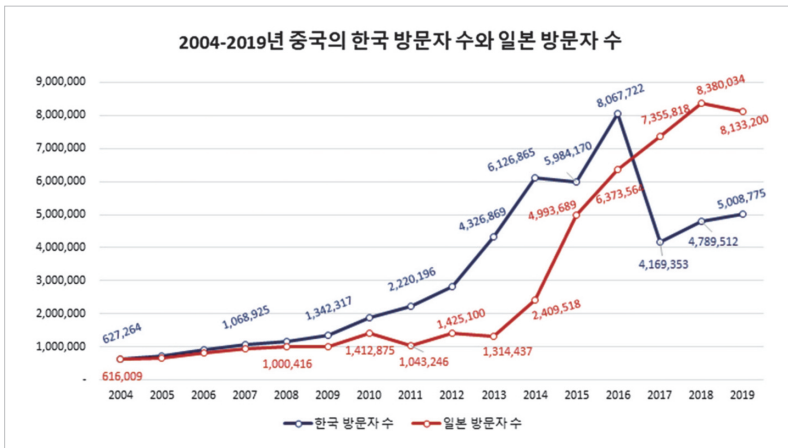
- 2010년과 2012년 중일관계가 다오위다오(钓鱼岛) 문제로 갈등이 고조될 때도 중국 방일 관광객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적 있음. 2012년 '다오위다오 국유화' 사건 직후 2012년 10월 중국의 일본 방문자는 69,631명으로 그 중 관광객 수가 21,04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대비 60.3% 감소. 2010년 중국 일본 방문자 수 월 성장률이 최고 183.4%(6월)를 기록했다가 9월 다오위다오 사건으로 인해 하락세로 나타났고 관광객 11월에 전년대비 35.2% 감소함.⁹⁾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 2016년 한국 방문 관광객 초과하고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관광 목적지로 부상. 일본국가여유국 (JNTO)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73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중국인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비해 더 부정적이지만 2012년 이후 일본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일본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5년 연속 일본 방문 관광객 1위 유지함. 2019년 상반기 중 중국 내 관광객은 453만 2500명으로 전체 일본 방문 관광객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함. 중일 관계의 긴장은 사실 국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양국 간 갈등은 있지만 국민 간의 교류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 소득 증가와 관광 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진, 비자의 간소화, 항공편 증편, 높은 여행 만족도 등에 비롯됨. 방일 관광객의 성장에 힘입어 비자 완화 정책을 여러 차례 추진했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9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8일 중·일 간 사

중일 관계의 긴장은 사실 국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양국 간 갈등은 있지만 국민 간의 교류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

이에 매주 정기 항공편은 1406개 개설한 것도 관광객의 급등 원인중 하나이다. 중국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의 경제적 부담 능력도 갈수록 높아져 해외 여행도 흔한 여가생활이 돼 가고 있음. 그러나 해외로 나갈 때 시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까운 나라를 택할 게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부상함. 특히 언급해야 한 것은 한중관계가 사드로 인해 악화된 후 한국대신 일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한중관계가 사드로
인해 악화된 후
한국대신 일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그림-4〉 2004~2019년 중국의 한국 방문자 수와 일본 방문자 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2019년은 10월까지의 데이터)

- 사드 갈등 이후 2018년부터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은 완만한 회복세 나타남.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79,891명으로 전년대비 49% 늘었음.
-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들의 확대에 따라 중국인은 한국, 한국인을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짐. 여행 과정에서 한국을 보고, 듣고, 한국의 교통, 음식, 쇼핑, 레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과거의 한국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국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됨. 한국은 이제 드라마 속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더욱 입체적인 이미지로 중국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저가 단체여행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례가 많음. 이로부터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가능성 있음.

◆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인 체류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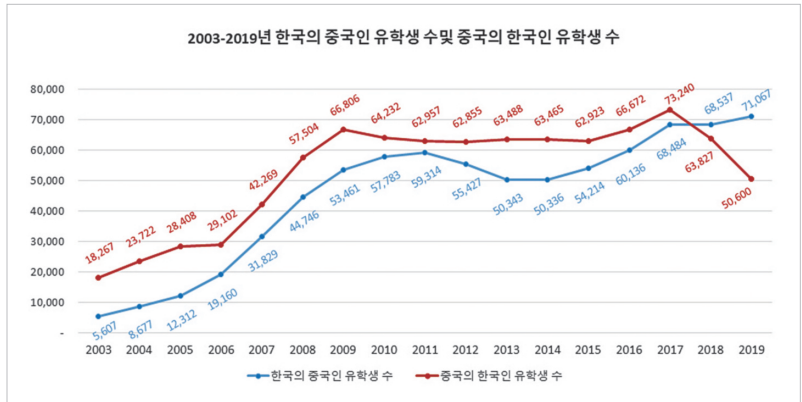
- 2018년도 중국에서 해외유학을 하는 학생은 66만 2,100명으로 1978년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여전히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이지만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도 아주 큰 비중
차지함**

부터 2018년 말까지 전체 해외유학생 수는 585만 7,100명임. 이 중 153만 3,900명이 해외에서 학습과 연구를 진행중임.¹⁰⁾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여전히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이지만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도 아주 큰 비중 차지함. 한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인 유학생수 7만명 돌파, 전체 유학생수의 44.4% 차지함. 중국에서 발표된 '2017년 유학 해외유학 인재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유학 귀국한 중국 유학생 대졸 초입은 국내 동등 학력의 대졸자 평균보다 17.2% 높음으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음.¹¹⁾ 그러나 역시 양국 관계 영향으로 2017년부터 한국 유학 중국인 유학생 수가 하락하는 추세 나타남.

- 한국 유학열이 나타나면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함. 특히 최근 한중간 흥행한 불법 다이거우(代购), 초단기 속성 박사과정 등으로 한국 유학의 질에 대한 질의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다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이나, 귀국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2018년 한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떠난 중국인 유학생은 3,636명이었으나 2013년 1,906명으로 5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어남. 중국 국내 일부 직업과 직장에서 박사학위는 '강제조건'인 동시에 출산을 저하로 인해 한국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대학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한국 박사학위과정은 비교적 완전한 산업시장이 형성됨.¹²⁾

<그림-5> 2003~2019년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수 및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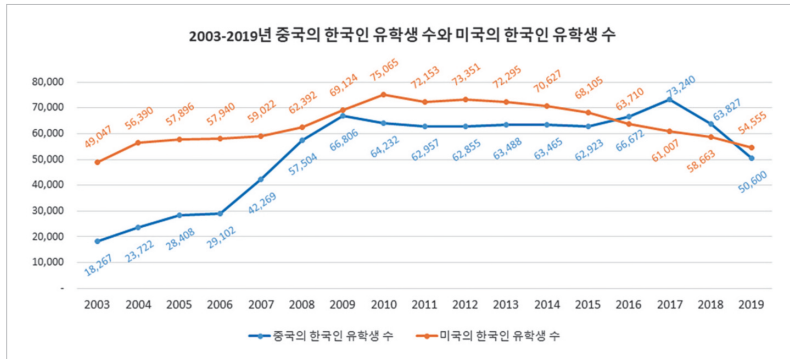
*출처: 한국 교육부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18년에 196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총 492,185명이 중국 31개 성의 1004개 대학에서 공부 진행 중. 국적으로 볼 때 한국인 유학생이 50,6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파키스탄 유학생 28,608명, 인도 유학생 28,023명 미국 유학생 23,198명, 러시아 유학생 20,996명으로 나타남.¹³⁾ 2018년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총 220,930명 중

63,827명이 중국에서 유학함으로써 전체에서 28.9%를 차지함. 한국에서 중국 관련 수요가 많아지자 한국에서 ‘중국어열’과 ‘중국유학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2016과 2017년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수가 66,672명으로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가장 큰 유학 대상국으로 부상함.¹⁴⁾ 이처럼 매년 한중 간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들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로 됨.

**매년 한중 간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들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로 됨**

〈그림-6〉 2003~2019년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와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



*출처: 한국 교육부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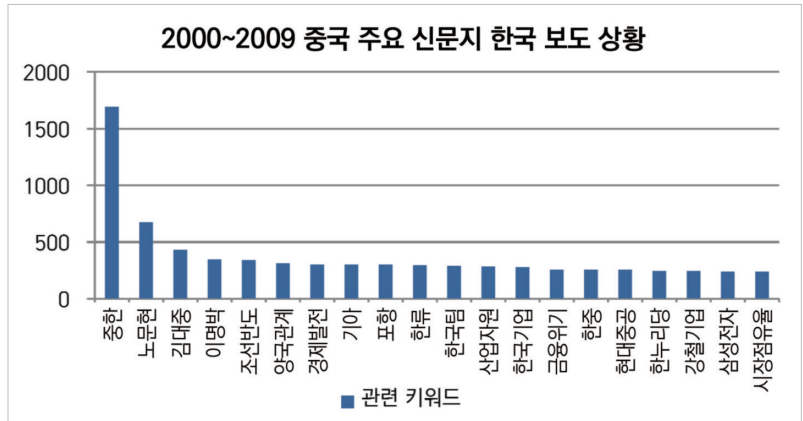
-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위해 유학생들은 상대국가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상대국가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생활 속에서도 상대국가 국민과 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가장 상대국을 잘 이해하는 단체로 됨. 이 집단의 확대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효과적인 소통의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한파’, ‘지중파’ 대량 양성의 역할 수행.
- 초기의 한국 유학 중국 유학생은 주로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이 주류였고 현재 언어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면서 학생의 질이 천차만별임. 이는 한편으로 한국 유학이 선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깝고, 비용이 덜 드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 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위한 외국인학생 모집 확대와 대학 경영으로 등록금 긴장 완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로 학생의 질과 교육의 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상황이 현실임.
- 한국에서는 매년 ‘중국어일’ 행사,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을 포함한 다양한 중국인 대상 공공외교 행사와 기타 교류, 체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7년부터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명을 상대로 한국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시리즈와 관련 기관 탐방을 기획하여 2년 연속 진행 중임. 이것은 모두 한국 체류 중인 중국인이 한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한국에 더욱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 있음.

중국에서의 한국 언론의 관심과 언급이 대폭 증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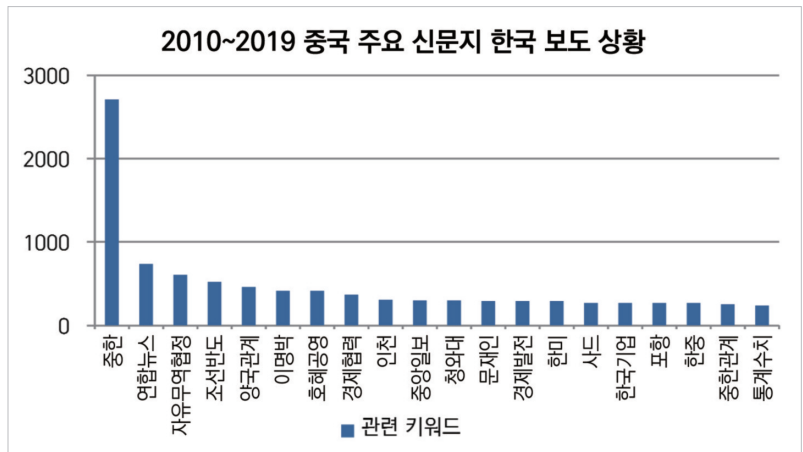
3) 정보통신의 활성화

◆ 전통 언론에서의 한국 관련 보도 변화

- 2000~2019년 중국 주요 신문지의 한국 보도를 통계해 본 결과 한국 관련 키워드의 빈도가 미묘하게 달라짐.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한국'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20개 중 '경제', '산업', '한국금융' 관련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류'와 '한국팀'이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함. 그러나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키워드는 '자유무역협정' '호혜공영' 등의 키워드는 각각 3위와 7위로, 변화된 한중 관계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반영함. 특히 이 시기 '한류', '한국팀'은 20위 안에 들지 못했고,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은 각각 2위와 10위에 올라 중국에서의 한국 언론의 관심과 언급이 대폭 증대한 것으로 보임.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주요 신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을 검색한 결과. 총 17,453편 관련 보도의 키워드 상위 20개.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중국 주요 신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을 검색한 결과. 총 16,525편 관련 보도의 키워드 상위 20개.

◆ 대중 매체의 활성화

-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전승리기념 열병식 참석 시 중국에서 전례없는 외교예우를 받았고 그 당시 양국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음. 박근혜 자서전 출간 이후 중국에서 인터넷에서의 인기로 화제를 모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당당망(当当网)의 발표에 따르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을 나를 움직인다』는 2014년 자서전 부문 판매 2위, 2015년 9,10월 2개월 연속 자서전 부문 판매 1위에 올랐고, 2015년 3월까지 60만 부 판매 돌파함.¹⁵⁾ 양국 관계는 당시 인터넷에서 대중들의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었고 양국 언론도 전례없이 양국관계에 관한 긍정적 보도가 지배적임.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사드에 대한 중국 국민의 반응도 언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국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양국 언론 보도의 방향도 급속도로 전향하기 시작함.
- 한중 양국관계는 과거와 비해 많이 냉각되었지만 양국 관련 정보의 획득수단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동통신수단의 혁신으로 더욱 쉬워졌고 계속 확대해가는 추세임. 한중 간 뉴스는 이미 국경의 계선이 사라졌고, 중국의 뉴스는 바로 한국 언론에 보도될 수 있고, 한국 뉴스는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뜨거운 화제로 됨. 이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양국의 상호 인식과 이해의 채널을 가속화시켰지만, 그 양면성도 존재함.
- 중국 런민론탄(人民论坛)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8%는 “국지적인 문제, 돌발적인 사안들이 여론 대결의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고, “개별적인 강력범죄와 같은 부정적 뉴스가 제대로 보도가 안될 경우 일련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76.8%로 나타남.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은 특히 언론의 발달로 개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들이 쉽게 드러나고 확산되며 일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음. 일부 파워블로거 혹은 어떤 외국 언론들은 종종 문제를 붙잡고 오보하거나, 지나치게 해독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¹⁶⁾
- 한국 언론은 중국인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임. 중국의 부정적인 보도나 균형 잃은 보도는 당연히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한중 양국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수단의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에 진입함. 상대국에 대한 주관적인 보도 등은 쉽게 전파되고 국가 간 이해도와 국민 감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현재 한중 간 일부 ‘협중’, ‘협한’ 정서를 인터넷에서의 표출로 양국 간 국민 호감도에 악순환 주는 현상에 유의할 필요 있음.

현재 한중 간 일부
협중, 협한 정서를
인터넷에서의 표출로
양국 간 국민 호감도에
악순환 주는 현상에
유의할 필요 있음.

3. 한중 양국 신뢰 구축을 위한 건의

- 한중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함. 사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양국 국가이익의 레드라인을 서로 알아야 함. 중국과 미국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 각국 국익을 손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양자, 다자 협력을 전개해야 하는 사고방식 필요함.
- 대중에게 정부 공식 입장과 개인 입장을 구분할 수 있게끔 양국 간 갈등을 기인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함.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기존 한국공공외교 검토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상대국 국가의 인식, 정책 등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함.
- 언론의 지나친 왜곡이나 오판 자제해야 함. 사실을 기초로 한 균형을 갖춘 객관적인 보도 유도해야 함. 국가 간 호감도 쌍방향적인 것으로 본국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갖기 어려운 것임.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한 것은 한계가 있음. 공동으로 노력해야 서로의 호감도,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음.
- 한중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 환경보호, 미세먼지 방지 등 영역에서 우선 협력 진행한 후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 새로 개발하고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을 필요 있음. 나아가서 이러한 협력을 한중일 3국으로 확대해 나갈 경험을 축적해야 함.
- 서로의 존중을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혼합 정체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하는 국내 정치가 양국관계의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유학생 뿐만 아니라 수교 이후 한중 간 국제결혼, 한국 취직 중국인을 비롯한 한국 체류중인 중국인, 중국 체류중인 한국인, 이들은 한중간 오가면서 양국 대중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들은 한중관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한중관계의 구축자이기도 함. 특히 청년의 역할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제3자의 충격과 돌발사건으로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양국 관계 위기대처능력의 강화와 보장장치가 시급함. 특히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이에 연루되지 않게끔 예방할 필요 있음.
- 중국이 진정으로 주변운명공동체, 아시아운명공동체, 나아가서 세계운명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우선 한중 관계의 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양국 국민간의 친근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 진정으로 한반도, 동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혼합
정체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하는 국내 정치가
양국관계의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함**

북아에서의 자주를 실현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에서 적극적인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인터넷 콘텐츠의 활성화와 중국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 수준의 향상은 중국 시청자들의 감상 수준을 높여줌. 한중 공동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행 문화 개발하여 협력하는 공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주 석

- 1)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출처 생략.
- 2) “Pew Report: How Asian Publics View Each Oth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5/09/02/how-asia-pacific-publics-see-each-other-and-their-national-leaders/>(검색일:2019.12.01).
- 3) “中日韩民众陷入‘信任危机’?”, 『中国青年报』2016年11月09日, 06版.
- 4) 동북아역사재단은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한중일 각 성인 500명(총 1500명)을 대상으로 역사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멀어져가는 한중일 부정적 인식 악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385121>(검색일: 2019.12.01).
- 5) 马利, “中国人要有自信”, 『人民日报』2014年9月4日, 07版.
- 6) ‘America First?’ Rating World Leaders: 2019”, <https://www.gallup.com/analytics/247040/rating-world-leaders-2019.aspx>(검색일: 2019.12.01)
- 7)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하이테크 수출 동향과 미중 무역분쟁에의 시사점”,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List.do>(검색일:2019.12.01).
- 8) “《2017中国旅游者意愿调查报告》出炉, 旅游超购房买车成消费首选, 7成将花费超万元”, http://www.sohu.com/a/130415750_180038(검색일:2019.12.01).
- 9) 일본정부관광국(JNTO)통계, https://www.jnto.go.jp/jpn/statistics/data_info_listing/index.html(검색일:2019.12.01).
- 10) 中国教育部, 『2018年度我国出国留学人员情况统计』,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3/t20190327_375704.html(검색일: 2019.12.01).
- 11) 前程无忧, 『2017海外留学生优秀人才需求报告』, <http://media.51job.com/2013/123/170728.htm>(검색일: 2019.12.01)
- 12) “这些来自中国的‘速成博士’, 让韩国人很紧张”,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856942746186754&wfr=spider&for=pc>(검색일: 2019.12.01).
- 13) 中国教育部, 『2018年来华留学统计』,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4/t20190412_377692.html(검색일: 2019.12.01).
- 14) 한국교육부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51&m=0310>(검색일: 2019.12.01).
- 15) “韩媒：朴槿惠自传在华畅销 累计销量突破60万本”, http://www.xinhuanet.com/world/2015-11/25/c_128466711.htm(검색일: 2019.12.01).
- 16) “人民论坛调查：网络意识形态现状 十个重要发现”, <http://theory.people.com.cn/n/2015/0728/c112851-27371823.html>(검색일: 2019.12.01).

❖ 저자 약력

■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중국 신형대국외교 담론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제하의 박사논문을 썼다. 현재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방향은 중국의 대외전략과 주변외교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아시아운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韩国总统迅速开启访美之旅的战略考量量』, 『“均衡”的东北亚国际关系与半岛安全结构』 등이 있다.

기획 및 감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